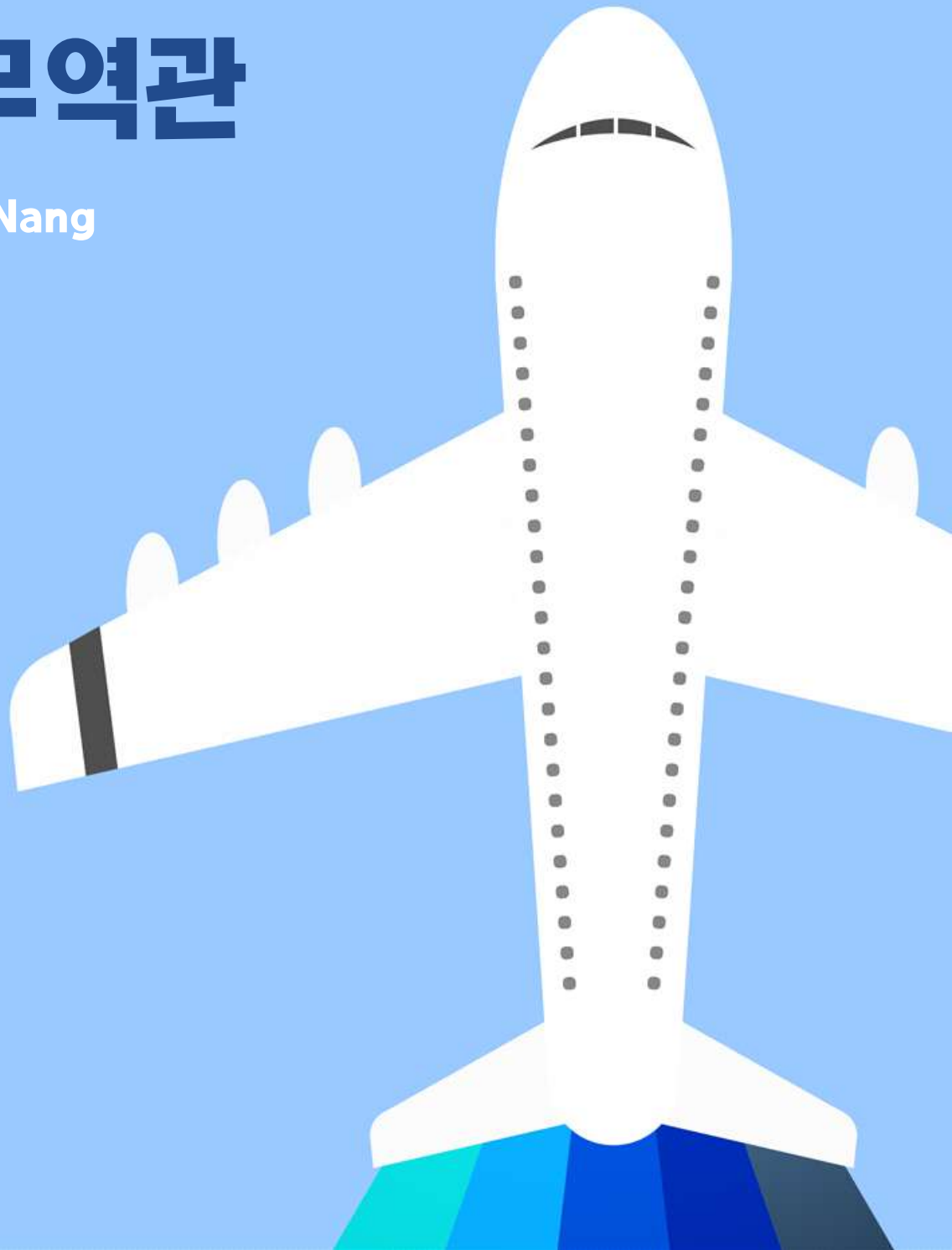


2025 해외출장 가이드

베트남 다낭무역관

KOTRA Da Nang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베트남 및 다낭 개황	01
II. 베트남 경제 및 무역 투자 동향	03
III. 베트남 경제 특징 및 정책 동향...	14
IV. 베트남 경제전망	24
V. 체류시 참고사항	25
VI. 주요 연락처	28


I. 베트남 및 다낭 개황

1. 베트남 개황

- 면 적 : 331,332km²(한반도의 약 1.5배, '23년 베트남 통계청)
- 인 구 : 1억 130만명('23년 베트남 통계청)
- GDP : 4,684.9억 달러('24년 명목 GDP 기준, IMF)
- 1인당 GDP : 4,650달러('24년 명목 GDP기준, IMF)
- 경제성장률 : 7.09%('24년, 베트남 통계청)
- 물가상승률 : 3.63%('24년, 베트남 통계청)
- 환 율 : 1달러 당 24,170 VND('24년 연평균, 베트남 중앙은행 기준)
- 시 차 : 한국보다 2시간 늦음 (G.M.T + 7시간)
- 민 족 : 비엣족(총인구의 약 85.7%), 타이족, 크메르족 등 54개 민족
- 종 교 : 불교(45.8%), 카톨릭(27.1%), 개신교(6.3%), 기타(20.8%) 등
- 정치체제 : 사회주의 공화국(공산당 1당 체제)
- 주요 지도자
 - 당서기장 : To Lam
 - 국가주석 : Luong Cuong
 - 총 리 : Pham Minh Chinh
 - 국회의장 : Tran Thanh Man



2. 다낭 개황

면적·인구	1,285 km ² / 124.5만명			
지역내 총생산(GRDP)	US\$ 6,060백만 (151조3천억VND)			
1인당 총생산	US\$ 4,766 (1억1,900만VND)			
GRDP 성장률	+7.39%			
FDI 누적	US\$ 45억 / 1,021개 프로젝트			
투자환경순위	지역경쟁력지수(PCI) : 15위 / 63개 성·시			
주요 개발지역 및 중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지역 : 호아칸(Hoa Khanh), 리엔찌우(Lien Chieu) 등 6개 산업단지와 하이테크파크, IT파크, 소프트웨어파크, FPT Complex 운영 • 중점분야 : 도시인프라개발(스마트 시티 등), ICT 등 하이테크 공업, 관광 및 부동산 개발, 교육서비스, 금융업 등 			
주요 산업 ('24년)	항목	비중	주요 업종	성장률
	1차 산업	1.77%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등	-0.15%
	2차 산업	18.50%	공업, 건설업, 제조업 등	+0.4%
	3차 산업	71.14%	도·소매업, 숙박·요식·부동산업 등	+0.62%
	세입	8.59%	-	-
주요 기업	(베트남기업) SUN 그룹(부동산 및 엔터테인먼트), DRC(고무), HOA THO TEXTILE(섬유봉제), HACHIBA TEXTILE(섬유봉제) 등 주요 기업 소재			
	(외국기업)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의 투자 진출 증가세 - (일본) Yamato Sewing Company, US\$ 28백만 투자 - (호주) RMIT University, US\$ 132만 투자			
한국기업 투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 기준 일본, 미국, 싱가포르에 이은 4위 투자국 • 228개 프로젝트, 총 US\$ 371백만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투자개발유한회사/ US\$ 90백만/ 부동산 개발 - 롯데마트/ US\$ 43백만/ 유통업 - VK 플러스 로지스틱/ US\$ 25백만/ 운송 및 물류업 - 대원/ US\$ 21백만/ 부동산 개발 - 덴티움/ US\$ 80백만/ 치과 의료기기 제조업 			
전략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중부 최대 도시이자 동남아시아 「Trade Gateway」 - (인프라) 베트남 5대 무역항 및 최고수준의 교통·통신 인프라 보유 - (위치)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동남아 동서회랑(EWEC)의 동부 거점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태평양 진출 기지 • 총 50개의 대학 및 직업학교 보유, 전체 인구의 52%가 노동인구 			

II. 베트남 경제 및 무역·투자 동향

1. 베트남 경제동향

□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분	단위	2020	2021	2022	2023	2024
명목 GDP	억 USD	3,463.1	3,697.4	4,064.5	4,333.6	4,684.9
1인당 명목 GDP	USD	3,548.9	3,753.4	4,086.5	4,316.3	4,650
실질경제성장률	%	2.87	2.56	8.02	5.05	7.09
물가상승률(CPI)	%	3.23	1.84	3.15	3.25	3.63
실업률	%	2.48	3.2	2.34	2.28	2.24
수출	억 USD	2,827	3,363	3,713	3,547	4,055
수입	억 USD	2,628	3,330	3,589	3,264	3,808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경제성장률, CPI, 실업률), 관세총국(수출·입), IMF(GDP)

□ 2024년 경제 동향

- (개요) 9월에 있었던 태풍 야기(Yagi)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생산, 수출 등 각종 경제 지표가 크게 개선돼 **2024년 7.09%의 성장률을 달성**
 -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교역 및 산업 생산 증가, 관광업 개선, 지속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등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연도별 성장률: ('21) 5.76% → ('22) 8.02% → ('23) 5.05% → ('24) 7.09%
- (무역) 교역이 부진했던 2023년과는 달리, **2024년 수출과 수입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교역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7,863억 달러 기록, 무역수지는 9년 연속 흑자 달성**
 - 수출이 14.3%, 수입이 16.7% 증가하며 **교역액은 종전 최고치였던 2022년 교역액보다 높았고 10년 전 교역 규모 대비 2배 이상 증가**
 - 연도별 교역규모(단위: 달러): ('21) 6,691억 → ('22) 7,302억 → ('23) 6,810억 → ('24) 7,863억
- (투자) 인바운드 FDI는 **38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 감소**
 - 연도별 FDI(단위: 달러): ('21) 311.5억 → ('22) 277.2억 → ('23) 393.9억 → ('24) 382.3억
- (생산) 산업생산지수(IIP) 기준 **2024년에 전년 대비 8.4% 증가**
 - IIP의 전년 대비 증감률: ('21) 4.7% → ('22) 7.4% → ('23) 1.5% → ('24) 8.4%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 **3.63%로 안정세 유지('24년 정부 물가 목표: 4.5% 이내)**
 - 연도별 CPI: ('21) 1.84% → ('22) 3.15% → ('23) 3.25% → ('24) 3.63%

2. 베트남의 대외 교역

□ 베트남의 대외 교역 동향

- (2023년) 교역액·수출액·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하여 ‘불황형 흑자’ 발생
 - 베트남 교역 규모는 6,8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73% 감소했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대외 수요(생산 및 수출 주문)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됨
 - 수출(3,547억 달러, 4.5% 감소)보다 수입(3,264억 달러, 9.1% 감소) 감소가 커 무역수지는 283억 달러 흑자 기록
 - 교역 순위는 1위 중국(1,719억 달러), 2위 미국(1,108억 달러), 3위 한국(760억 달러) 순
- (2024년) 교역액·수출액·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
 -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7,8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는데,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생산 및 주문량 회복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됨
 - 수출(4,055억 달러, 14.3% 증가), 수입(3,808억 달러, 16.7% 증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는 247억 달러를 기록
 - 교역 순위는 1위 중국(2,052억 달러), 2위 미국(1,346억 달러), 3위 한국(815억 달러) 순

<베트남의 대외 교역 동향>

(단위 : US\$ 백만,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43,483 (13.3)	264,267 (8.4)	282,629 (6.9)	336,311 (19.0)	371,304 (10.5)	354,671 (△4.5)	405,532 (14.3)
수입	236,688 (11.3)	253,393 (7.0)	262,691 (3.7)	332,235 (26.5)	358,902 (7.8)	326,374 (△9.1)	380,764 (16.7)
무역수지	6,795	11,118	19,938	4,076	12,403	28,297	24,770
교역규모	480,171 (12.3)	517,660 (7.7)	545,319 (5.3)	668,546 (22.7)	730,206 (9.1)	681,045 (△7.2)	786,296 (15.5)

주: 괄호 안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20~'24년 베트남의 10대 교역국 순위 및 국가별 교역 규모>

(단위 : US\$ 십억, %)

순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가	교역액 (비중)	국가	교역액 (비중)	국가	교역액 (비중)	국가	교역액 (비중)	국가	교역액 (비중)
1	중국	133.1 (24.4)	중국	165.8 (24.8)	중국	175.6 (24.0)	중국	171.9 (25.2)	중국	205.23 (26.1%)
2	미국	90.8 (16.6)	미국	80.5 (16.6)	미국	123.9 (17.0)	미국	110.8 (16.3)	미국	134.6 (17.1%)
3	한국	66.0 (12.1)	한국	56.4 (11.7)	한국	86.4 (11.8)	한국	76.0 (11.2)	한국	81.55 (10.4%)
4	일본	39.6 (7.3)	일본	30.9 (6.4)	일본	47.6 (6.5)	일본	45.0 (6.6)	일본	46.2 (5.9%)
5	대만	21.0 (3.9)	대만	18.6 (3.9)	대만	27.7 (3.8)	대만	23.2 (3.4)	대만	28.36 (3.6%)
6	태국	15.9 (2.9)	태국	13.7 (2.8)	태국	21.6 (3.0)	태국	19.0 (2.8)	태국	20.23 (2.6%)
7	홍콩	11.5 (2.1)	인도	9.8 (2.0)	호주	15.7 (2.2)	인도	14.4 (2.1)	인도네 시아	16.72 (2.1%)
8	말레이 시아	10.0 (1.8)	홍콩	9.6 (2.0)	인도	15.0 (2.1)	인도네 시아	13.8 (2.0)	인도	14.89 (1.9%)
9	독일	10.0 (1.8)	말레이 시아	9.1 (1.9)	말레이 시아	14.7 (2.0)	호주	13.8 (2.0)	말레이 시아	14.19 (1.8%)
10	인도	9.7 (1.8)	호주	9.1 (1.9)	인도네 시아	14.2 (1.9)	말레이 시아	12.7 (1.9)	호주	14.07 (1.8%)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24년 베트남의 주요 수출·수입국 현황>

(단위 : US\$ 십억, %)

순위	국가명	수출액 (비중)
1	미국	119.5(29.5%)
2	중국	61.21(15.1%)
3	한국	25.62(6.3%)
4	일본	24.61(6.1%)
5	네덜란드	12.99(3.2%)
6	홍콩	12.42(3.1%)
7	인도	9.06(2.2%)
8	독일	7.93(2.0%)
9	태국	7.78(1.9%)
10	영국	7.54(1.9%)
	기 타	116.85(28.8%)
	합 계	405.53(100)

순위	국가명	수입액(비중)
1	중국	144.02(37.8%)
2	한국	55.93(14.7%)
3	대만	22.74(6.0%)
4	일본	21.59(5.7%)
5	미국	15.10(4.0%)
6	태국	12.45(3.3%)
7	인도네시아	10.53(2.8%)
8	호주	7.59(2.0%)
9	말레이시아	9.13(2.4%)
10	쿠웨이트	7.25(1.9%)
	기 타	74.43(19.5%)
	합 계	380.76(100)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	2023년		2024년		
		수출액	비중	수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비중
1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57,336	16.2	72,584	26.6	17.9
2	전화기, 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52,379	14.8	53,892	2.9	13.3
3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43,128	12.2	52,192	21.0	12.9
4	섬유·의류제품	33,329	9.4	37,037	11.1	9.1
5	신발류	20,238	5.7	22,872	13.0	5.6
6	목재 및 목제품	13,468	3.8	16,282	20.9	4.0
7	수송수단 및 부속품	14,157	4.0	15,067	6.4	3.7
8	수산물	8,971	2.5	10,040	11.9	2.5
9	철강	8,350	2.4	9,080	8.7	2.2
10	카메라 및 부분품	7,619	2.1	8,023	5.3	2.0
	기타	95,696	27.0	108,464	13.3	26.7
	총 수출액	354,671	100	405,532	14.3	100.0

주: 2024년 수출액 기준 순위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베트남의 주요 수입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	2023년		2024년		
		수입액	비중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비중
1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87,966	27	107,053	21.7	28.1
2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41,580	12.7	48,888	17.6	12.8
3	직물	13,017	4.0	14,905	14.5	3.9
4	철강	10,425	3.2	12,583	20.7	3.3
5	플라스틱 원료	9,755	3	11,780	20.8	3.1
6	전화기, 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8,749	2.7	10,404	18.9	2.7
7	기타 비금속류	7,627	2.3	9,554	25.3	2.5
8	플라스틱 제품	7,509	2.3	8,854	17.9	2.3
9	화학 원료	7,727	2.4	8,286	7.2	2.2
10	원유	7,106	2.2	8,115	14.2	2.1
	기타	113,786	34.9	140,340	23.3	36.9
	총 수입액	326,374	100	380,764	16.7	100.0

주: 2024년 수입액 기준 순위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 한-베트남 교역 동향

- (2023년) 베트남은 한국의 제3위 교역국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외수요 둔화에 따라 양국 간 교역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한 약 794억 달러를 기록
 -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액은 약 5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했고, 수입액은 약 2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
- (2024년) 베트남의 對세계 교역이 회복하면서 한-베 교역 규모도 동반 증가. 양국 간 교역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약 868억 달러를 기록
 -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액은 583억 달러로 전년 대비 9.1% 증가하고, 수입액은 284억 달러로 9.6% 증가
 - 對베트남 수출 확대에 힘입어 한국의 對베트남 무역흑자 규모는 약 299억 달러 기록

*** 한국의 대외교역에 있어 베트남의 위상 변화**

- 수출: ('17)3위 → ('18)3위 → ('19)3위 → ('20)3위 → ('21)3위 → ('22)3위 → ('23)3위 → ('24)3위
- 수입: ('17)8위 → ('18)7위 → ('19)5위 → ('20)5위 → ('21)6위 → ('22)7위 → ('23)6위 → ('24)7위
- 교역: ('17)4위 → ('18)4위 → ('19)4위 → ('20)4위 → ('21)4위 → ('22)3위 → ('23)3위 → ('24)3위

* '24년 기준,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은 3위 교역대상국(수출 3위, 수입 2위)

<한국의 對베트남 교역 동향>

(단위: US\$ 백만,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한→베]	48,622 (1.8)	48,178 (△0.9)	48,511 (0.7)	56,729 (16.9)	60,964 (7.5)	53,480 (△12.3)	58,321 (9.1)
수입 [베→한]	19,643 (21.4)	21,072 (7.3)	20,579 (△2.3)	23,966 (16.5)	26,725 (11.5)	25,942 (△2.9)	28,441 (9.6)
무역수지	28,979	27,106	27,932	32,763	34,239	27,538	29,881
교역규모	68,265 (6.8)	69,250 (1.4)	69,090 (△0.2)	80,695 (16.8)	87,689 (8.7)	79,421 (△9.4)	86,762 (9.2)

주: 괄호 안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품목별 한-베트남 수출입 현황

<'24년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비중
1	반도체	18,039	41.7	30.9
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227	-9.1	19.3
3	석유제품	2,731	-17.7	4.7
4	무선통신기기	2,511	15.9	4.3
5	합성수지	2,334	16.8	4.0
6	기구부품	1,773	-4.8	3.0
7	플라스틱 제품	1,056	3.4	1.8
8	철강판	994	12.0	1.7
9	자동차부품	857	12.8	1.5
10	편직물	690	0.6	1.2
	기 타	16,110	-	27.6
	합 계	58,321	9.1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3단위 기준)

<'24년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수입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수입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비중
1	무선통신기기	4,678	3.0	16.4
2	의류	3,594	1.4	12.6
3	반도체	2,977	45.0	10.5
4	컴퓨터	2,384	14.9	8.4
5	산업용 전기기기	1,700	21.7	6.0
6	신변잡화	1,221	-2.5	4.3
7	목재류	682	-5.7	2.4
8	기구부품	655	14.6	2.3
9	계측제어분석기	620	53.6	2.2
1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98	-9.1	2.1
	기 타	9,332	-	32.8
	합 계	28,441	9.6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3단위 기준)

3. 베트남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

- '24년 말 누계 기준, 베트남 유입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총 42,002개 프로젝트, 투자액 5,028억 달러 기록
 - 누계 기준 1위 투자국은 한국으로 총 10,102개 프로젝트, 920억 달러(총액의 18.3%), 다음으로 싱가포르 3,914개 프로젝트, 831억 달러(16.5%), 일본 5,489개 프로젝트, 777억 달러(15.4%), 대만 3,262개 프로젝트, 409억 달러(8.1%) 순
- '24년 1~12월 FDI 유치 총액은 약 38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 감소
 - 동 기간 신규 투자는 3,375건, 197.3억 달러, 증액 투자는 1,539건 139.6억 달러, 지분 및 주식매입 투자는 3,502건 45.4억 달러 기록
 - 투자 분야는 제조·가공업에 255.8억 달러가 투자되어 전체 FDI의 66.9%를 차지, 이어 부동산경영업(16.5%), 전력·가스·용수생산 및 판매업(3.7%), 도소매 유통 및 수리업(3.7%), 전문과학기술업(3.3%), 건설업(1.7%), 물류운송업(1.3%) 순

< 2024년 주요 산업 분야별 외국인 투자 >

순번	산업분야	신규투자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백만USD)	증액투자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백만USD)	지분투자 및 주식매입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백만USD)	'24년 총투자금액 (백만USD)	'23년 총투자금액 (백만USD)	'23년대비 증감률
1	제조가공업	1,169	13,436.8	982	11,244.9	555	896.6	25,578.2	25,299.5	↑ 1%
2	부동산경영업	81	3,716.6	54	1,374.9	83	1,218.0	6,309.5	5,310.5	↑ 19%
3	전력, 용수 생산 및 판매업	4	1,023.7	5	257.9	13	139.8	1,421.5	2,381.9	↓ 40%
4	도소매 및 수리업	1,172	833.1	190	219.7	1,432	354.7	1,407.5	1,334.4	↑ 5%
5	전문과학기술	364	121.8	94	378.9	565	768.1	1,268.8	1,437.8	↓ 12%
6	건설업	52	43.4	39	56.8	75	542.6	642.8	352.8	↑ 82%
7	물류, 창고업	115	341.2	33	92.6	142	54.0	487.8	490.8	↓ 1%
8	정보통신업	235	38.0	69	115.4	242	128.3	281.7	420.9	↓ 33%
9	기타 서비스업	9	4.8	3	163.0	14	1.7	169.5	45.6	↑ 272%
10	행정 및 지원사업	69	43.1	27	17.5	79	99.8	160.4	60.5	↑ 165%
11	요식서비스업	38	21.2	20	28.1	198	74.4	123.7	89.1	↑ 39%
12	금융, 보험업	6	4.1	1	0.1	18	119.5	123.6	1,557.1	↓ 92%
13	의료 및 사회복지업	2	2.2	2	0.8	14	92.4	95.4	362.6	↓ 74%
14	농림수산업	11	64.5	8	9.1	16	4.0	77.6	68.5	↑ 13%
15	교육업	38	27.5	7	6.3	38	5.8	39.6	47.6	↓ 17%
16	용수 공급 및 폐수처리업	1	0.0	4	(-9.1)	6	29.7	20.6	116.2	↓ 82%
17	예술, 엔터테인먼트	8	8.6	-	-	7	5.7	14.3	13.6	↑ 5%
18	광산개발	1	0.6	1	0.2	5	3.0	3.8	1.0	↑ 272%
	총계	3,375	19,731.1	1,539	13,957.0	3,502	4,538.1	38,226.2	39,390.3	↓ 3.0%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4.12.31. 기준

- '24년 베트남 주요 투자국 중 싱가포르의 투자 강제 지속, 한국은 제2투자국
 - 전년 대비 투자액 기준 주요 투자국 중 한국(37.5%↑), 싱가포르(31.4%↑), 중국(3.1%↑)의 투자 증가, 일본(-48.1%), 대만(-29.5%), 홍콩(-9.5%)은 감소
 - '24년 한해 베트남 최대 투자국은 싱가포르(102.1억 달러, 전체 FDI의 26.7%)이며 다음으로 한국(70.6억 달러, 18.5%), 중국(47.3억 달러, 12.4%), 홍콩(43.5억 달러, 11.4%), 일본(35.0억 달러, 9.2%) 순

< 2024년 대 베트남 상위 20개국 투자 현황 >

순번	투자국	신규투자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백만USD)	증액투자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백만USD)	지분투자 및 주식매입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백만USD)	'24년 총투자금액 (백만USD)	'23년 총투자금액 (백만USD)	'23년대비 증감률
1	싱가포르	462	6,260.1	182	2,691.2	343	1,256.0	10,207.4	7,766.6	↑31.4%
2	한국	410	2,886.3	351	3,902.6	883	268.5	7,057.3	5,131.1	↑37.5%
3	중국	955	2,843.0	230	1,130.5	512	758.6	4,732.1	4,588.2	↑3.1%
4	홍콩	379	2,170.5	175	2,064.6	93	112.4	4,347.5	4,806.4	↓9.5%
5	일본	270	1,776.3	174	800.7	227	925.1	3,502.2	6,752.7	↓48.1%
6	대만	187	1,121.8	116	713.9	287	248.9	2,084.6	2,958.2	↓29.5%
7	케이만군도	4	34.5	4	1,002.3	19	194.7	1,231.5	225.7	↑445.7%
8	사모아	45	460.8	34	339.0	22	55.8	855.6	1,101.0	↓22.3%
9	터키	7	731.3	2	31.6	8	0.6	763.5	183.7	↑315.7%
10	버진아일랜드 (영국령)	17	219.3	29	217.5	16	149.5	586.3	269.8	↑117.3%
11	네덜란드	24	61.3	20	461.7	22	23.0	546.1	970.0	↓43.7%
12	미국	111	183.2	32	(-44.4)	148	148.4	287.3	646.7	↓55.6%
13	세이셸	27	174.9	26	89.5	8	9.6	274.0	275.1	↓0.4%
14	영국	44	173.3	12	38.9	43	29.1	241.3	88.6	↑172.3%
15	태국	28	111.5	17	83.6	37	30.1	225.2	892.9	↓74.8%
16	말레이시아	44	90.3	16	75.5	71	19.4	185.2	442.6	↓58.2%
17	룩셈부르크	4	129.2	4	3.1	3	7.7	140.1	11.5	↑1115.9%
18	독일	24	56.5	16	31.8	30	30.3	118.5	428.9	↓72.4%
19	스위스	13	3.4	8	99.0	10	0.7	103.2	44.5	↑131.7%
20	인도	48	2.8	5	74.6	75	9.4	86.7	135.0	↓35.8%
	기타	-	-	-	-	-	-	-	-	-
	총계	3,375	19,731.1	1,539	13,957.0	3,502	4,538.1	38,226.2	39,390.3	↓3.0%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4.12.31. 기준

- 2024년 한해 대 베트남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는 안정적
 - 2024년 제조업 분야 전체 FDI 유치액(신규+증액+M&A, 주식매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
 - 미-중 무역분쟁 및 공급망 변화로 인한 탈중국 제조공장 이전 사례 증가
 - '24년 말 기준, 제조업 신규 프로젝트 투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이미 회복
 - * '19년 / '24년 제조업 신규 투자 : 투자액 (125억 달러 / 134억 달러) 프로젝트 수(1,365개 / 1,169개)

□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동향

- '24년 말 누계, 대 베트남 한국 투자는 총 10,102개 프로젝트 투자액 920억 달러
 - 대베트남 한국 투자는 제조업에 집중(74.7%). 다음으로 부동산 경영업(10.6%), 전력/용수/가스 제조 및 판매업(4.3%), 건설업(3.0%),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2.1%), 물류운송업(0.9%) 순

<1988년 ~ 2024년 말 누계, 한국의 분야별 투자현황>

(단위: 건, US\$ 억, %)

분야	프로젝트 수	투자금액	비율
제조 가공업	4,669	687.5	74.7%
부동산 경영업	240	98.0	10.6%
전력, 용수, 가스 생산 및 판매업	29	39.5	4.3%
건설업	928	27.8	3.0%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	1,737	19.7	2.1%
물류, 운송업	213	8.6	0.9%
전문과학 기술업	780	8.6	0.9%
호텔 요식업	444	8.5	0.9%
정보통신업	526	7.5	0.8%
기타	536	14.4	1.6%
총계	10,052	882.9	100%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4.12.31. 기준

- '24년 한해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전년 동기 대비 약 37.5% 큰 폭 증가
 - 신규 투자는 총 410건, 28.9억 달러이며, 증액투자 351건 39.0억 달러, 지분 매입 및 주식 투자는 883건 2.7억 달러 수준
 - 동 기간 제조업 분야에 411개 프로젝트, 49.6억 달러가 투자되며 총 투자액 대비 약 70.2%를 차지, 다음으로 전력/용수/가스 생산 및 판매업 (14.1%), 물류운송업(6.2%), 부동산 경영업(6.0%),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5.8%), 전문과학기술업(1.5%), 정보통신업(0.5%) 순
 - * '24년 9월, 대우건설 베트남 TTA사와 닌투언성 양수저장 수력발전(양수발전)에 약 9억 달러 투자
- '24년 한해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순위는 싱가포르에 이은 2위로 회복
 - '24년 한해 제조업 분야 신규 프로젝트 수는 112건, 투자액 12.1억 달러로 저조한 편이나, 제조업 증액 투자가 207건 36.5억 달러로 큰 비중 차지

- '24년 한해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판매 물량 감소와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신흥 투자 유망시장으로의 투자 증가 요인이 있었으나 대미국 수출 허브 역할을 하는 베트남에 대한 투자수요는 여전히 견조
- 한국의 경우 2010년대 탈중국화를 사전에 진행하여 다수의 기업이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기타 국은 현재 탈중국화가 진행 중인 측면이 있어 투자 1위 지위는 넘겨준 상황

<최근 5년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동향>

(단위: US\$ 백만, 건)

연도	신규프로젝트		증액투자 프로젝트		M&A, 주식매입		총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2019년	1,137	3,668.7	457	1,580.2	2,959	2,667.9	7,917.0
2020년	609	1,205.8	354	1,740.1	1,823	1,003.1	3,949.1
2021년	361	1,198.9	280	3,162.8	1,301	591.4	4,953.1
2022년	416	1,118.8	361	2,818.6	1,215	941.6	4,879.0
2023년	472	1,840.9	327	2,159.2	961	400.8	5,131.1
2024년	410	2,886.3	351	3,902.6	883	268.5	7,057.3

주: 베트남 정부는 '24년 8월부터 FDI 투자 통계 집계기준을 각월 20일에서 31일로 변경.

'19~'23년 통계는 12월 20일 기준, 굵은 글씨는 '24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4.12.31. 기준

<2024년 한국의 대 베트남 주요 산업별 투자 현황>

순번	산업분야	신규투자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백만USD)	증액투자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백만USD)	지분투자 및 주식매입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백만USD)	'24년 총투자금액 (백만USD)	투자비율
1	제조가공업	122	1,207.8	207	3,652.4	82	95.7	4,955.9	70.2%
2	전력, 용수 생산 및 판매업	2	897.8	1	95.2	1	0.4	993.4	14.1%
3	부동산경영업	11	416.5	9	4.3	10	1.9	422.8	6.0%
4	도소매 및 수리업	137	284.2	53	34.6	420	90.8	409.6	5.8%
5	전문과학기술	45	18.9	21	62.4	136	24.1	105.4	1.5%
6	정보통신업	32	6.1	16	20.9	59	12.5	39.6	0.5%
7	요식서비스업	22	16.9	9	9.2	62	10.6	36.6	0.5%
8	건설업	7	10.2	15	16.0	25	6.1	32.3	0.5%
9	농림수산업	1	11.0	-	-	4	0.7	11.7	0.2%
10	의료 및 사회복지업	1	0.2	1	0.6	3	10.9	11.7	0.2%
11	물류, 창고업	9	1.9	7	1.0	45	8.3	11.2	0.2%
12	교육업	2	7.7	2	2.9	3	0.4	11.0	0.2%
13	행정 및 지원사업	14	3.0	9	3.0	24	3.8	9.8	0.1%
14	금융, 보험업	3	3.0	1	0.1	1	0.0	3.1	0.0%
15	예술, 엔터테인먼트	1	1.0	-	-	3	0.6	1.6	0.0%
16	광산개발	-	-	-	-	1	1.4	1.4	0.0%
17	기타 서비스업	1	0.1	-	-	4	0.2	0.3	0.0%
	총계	410	2,886.3	351	3,902.6	883	268.5	7,057.3	100.0%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4.12.31. 기준

○ 2024년 주요 한국 투자 프로젝트(신규 및 증액) 현황

< 10대 신규투자 프로젝트 >

순번	투자프로젝트명	투자분야	투자금액 (USD)	투자지역	투자일
1	대우건설 양수 수력발전 사업 (TTA사 합작)	발전	9.0억	Ninh Thuan성(남부)	2024.09.30
2	대우건설 타이빈성 신도시 건설	신도시	3.8억	Thai Binh성(북부)	2024.10.01
3	TEXON	전자부품	3.0억	Hung Yen성(북부)	2024.12.03
4	YEN HUNG PETROCHEMICAL	오일저장소	2.0억	Quang Ninh성 (북부)	2024.11.08
5	서진시스템	전자부품	2.0억	Hung Yen성(북부)	2024.12.03
6	덴티움	임플란트	1.7억	Da Nang시(중부)	2024.10.29
7	서진베트남	주조	5.0천만	Bag Giang성(북부)	2024.04.27
8	JP Group	유통업	4.3천만	Ho Chi Minh시 (남부)	2024.02.21
9	UTI	전자부품	3.5천만	Vinh Phuc성(북부)	2024.12.02
10	세영베트남	전자부품	3.5천만	Hai Phong시(북부)	2024.03.18

< 10대 증액투자 프로젝트 >

순번	투자프로젝트명	투자분야	투자금액 (USD)	투자지역	투자일
1	LG디스플레이 하이퐁	디스플레이 장치	13.5억	Hai Phong시(북부)	2024.12.27
2	LG디스플레이 하이퐁	디스플레이 장치	10억	Hai Phong시(북부)	2024.11.14
3	희성전자	전자부품	1.2억	Hai Phong시(북부)	2024.11.13
4	남동발전(Hai Lang 1 LNG 발전)	발전	9.5천만	Quang Tri성(중부)	2024.12.24
5	인터플렉스/코 리아 서킷	PCB, 모듈	9.2천만	Vinh Phuc성(북부)	2024.03.04
6	HKT 전자	전자부품	7.3천만	Hai Phong시(북부)	2024.05.09
7	경남화학	플라스틱	7.1천만	Hai Phong시(북부)	2024.05.09
8	한이플렉서블	FPCB	6.2천만	Hai Phong시(북부)	2024.06.10
9	ITM 반도체	전자부품	5.8천만	Bac Ninh성(북부)	2024.04.05
10	이노렉스	자동차 LED	5.5천만	Hai Phong시(북부)	2024.05.09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4.12.31. 기준, 무역관 자료 취합

Ⅲ. 베트남 경제 특징과 정책 동향

1. 베트남 경제 및 시장 특징

□ 베트남의 내수경제 시장, 중산층의 증가로 인하여 점차 두터워질 것

- 베트남은 2023년에 공식 1억 인구를 돌파했으며 2024년 약 1억 13만 명임
 - 베 통계청은 2021~2030년까지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0.61%로 전망하나, 1가구 2자녀 미만 출산 및 가구당 소득 증가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전망
 - 2024년 여성: 남성 비율은 50.2%: 49.8%, 도시와 농촌 비율은 38.2%: 61.8%, 남녀 출생 성비는 114: 100.0이며, 출생 시 기대 수명은 74.7세임
 - 2024년 만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는 약 5,300만 명, 이 중 취업인구는 5,190만 명이며, 노동가능인구의 실업률은 2.24%, 이들의 미취업률은 1.84%로 추산
 - *도시화율은 2020년 기준 37%에서 2030년 44%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 향후 10년 이내 베트남의 도시 거주 인구가 약 1,000만 명 증가할 가능성 다대
- 2024년, 베트남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540만 동으로 전년 대비 약 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한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770만 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매킨지, 2000년에는 베트남 인구의 10% 미만이 소비계층에 편입되어 있었으나, 2020년에는 인구의 40%가 일일 11~70달러를 소비하며, 2030년까지 인구의 75%가 일일 구매력 11~70달러 사이로 성장 전망

<베트남의 2023년 지역별 인구 및 1인당 월평균 소득>

(단위: 천 명, 천 동)



자료: 베트남 통계청,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소도시 및 지방 소비자의 구매력 향상
 - 매킨지에 따르면, 전통적인 소비 세력은 베트남의 양대 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 시에 밀집되어 있으나, 위성도시 및 지방 성·시의 소득은 점차 향상될 것으로 예상
 - 2020년 하노이와 호치민 시는 2011년 소비자구매력(PPP) 기준으로 2만 2,000달러 이상인 베트남 전체 가구의 37%를 차지했으나, 2030년에는 이들의 비중이 3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반면 향후 메콩삼각주 유역과 홍강 삼각주 유역 거주자의 소득과 구매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 2030년까지 하루 최소 11달러를 지출하는 소비계층이 약 3,600만 명 증가예상
 -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는 베트남 인구의 10% 미만이 소비계층에 편입되어 있었으나, 2020년에는 인구의 40%가 일일 11~70달러를 소비하며, 2030년까지 인구의 75%가 일일 구매력 11~70달러 사이로 성장 전망

□ GVC 수혜국 입지 확립, 전방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 도모

- 현지화 비율 향상 정도가 GVC 참여도를 높일 필요
 - 외국인 투자유치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로컬 기업의 현지 제조 비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
 - * 베트남 소재 일본 기업의 현지 부품 및 원자재 조달 비중은 37%에 불과하나 인도 네시아는 47% 이상, 태국은 60%에 육박
 -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현지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베트남 인적자원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디지털 전환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이 필수적
- 베트남의 GVC 참여지수는 62.1로 아시아(44.4), 유럽(48.8), 북미(37.8), 남미(36.5)에 비해 현저히 높음
 - 베트남의 참여지수는 전방산업(최종소비자와 가까운 업종)보다 후방산업(제품 소재나 원재료 공급 쪽에 가까운 업종) 비율이 높으므로 최종소비자와 가까운 전방산업의 비중을 향상시키는 것이 베트남 GVC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
 - 베트남의 전방산업 참여지수는 11.0, 후방산업 참여지수는 51.1로서 베트남은 제품 소재나 원재료 공급에 가까운 공급망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WTO가 조사한 2010년 대비 2018년 베트남의 GVC 참여 비율은

16.5%로 증가하여 아시아(4.5%), 유럽(4.0%), 북미(4.4%), 남미(1.3%)의 증가율 대비 월등히 높은 성장세를 보여줌

* 향후 베트남의 전방산업 참여 비율이 증가하면 베트남의 GVC 가치 역시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숙련 노동자 양성이 베트남 부가가치 산업 활성화의 핵심

- 베트남 현지의 전자산업 종사자 130만 명 대부분 단순노동자, 관리직 역시 전문성 부족

-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와 국제노동기구(ILO)가 2021년 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전자기업 근로자의 약 5%, 기본 업무 능력 부족으로 작업에 애로가 있다고 밝힘

* 응답 기업의 60%는 숙련 노동자 부족, 50%는 관리직 전문성 부족 호소

- 베트남 현지 직원의 숙련도를 향상시키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전방산업으로 이동해야 베트남의 공급망 참여도가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베트남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FDI 기업군

○ FDI 기업이 베트남 수출 성장을 견인

- '24년도 FDI 기업의 수출액은 2,892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72.9% 차지, 베트남 대외교역에 있어서 FDI 기업의 높은 의존도를 방증

* 연도별 전체 수출에서 FDI 기업의 비중 추이: (2019년) 68.0% → (2020년) 72.2% → (2021년) 72.9% → (2022년) → (2023년) 73.1% → (2024년) 72.8%

□ 가속화된 디지털전환,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 눈여겨 보아야

○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 중 하나로 2025년부터 연평균 19%대 성장률을 거듭해 2030년이면 최대 630억 달러까지 확대돼 태국을 제치고 동남아 2위 시장에 오를 것으로 전망(e-Conomy SEA 2024)

- '24년 e-Conomy SEA 2024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8% 성장해 2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이는 동남아 국가 중 3위

* 시장 규모 기준 1~2위는 인도네시아(650억), 태국(260억)이며, 시장 성장률 기준 1~2위는 필리핀(23%), 태국(19%)임

* 베트남 공상부는 2024년 전자상거래 규모가 25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쇼피와 틱톡샵이 사실상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많은 플랫폼들은 은행과의 제휴 및 자체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해 매출 증대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도시 (하노이, 호치민, 다낭)의 오프라인 쇼핑인구 중 20~30%가 온라인 쇼핑인구로 전환(Nielson)
- 베트남 포함, 동남아 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라이브커머스 등은 입점업체의 매출 증대에 효과적(Kantar Vietnam)
- 시장조사업체 칸타르 베트남과 라자다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동남아 소비자는 가격탄력성이 높아, 가격경쟁력과 할인 쿠폰 등 프로모션에 민감
- 숏폼이나 쇼퍼테인먼트 등 라이브커머스가 매출 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이를 활용한 전략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 1국 3색의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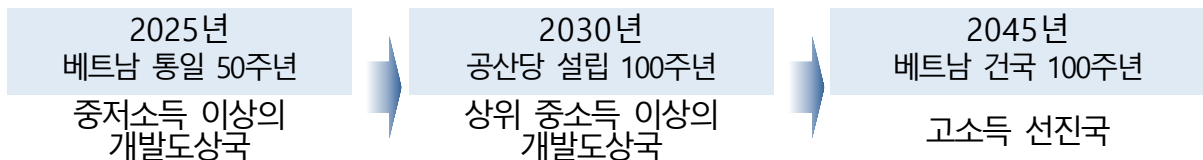
- 베트남 북부·중부·남부는 물리적 거리, 역사적 배경, 상이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해 성장 격차가 상당하며, 소비성향과 투자환경 면에서 차이가 뚜렷
- (호치민시) 베트남 경제도시이자 최대 소비시장
 - 의류·섬유, 경공업, 유통, 부동산, 건설 등 다양한 분야 투자 러시, 닌투언성, 빈투언성 등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스마트시티 등의 프로젝트 진행 중
 - 호치민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주자 소득수준, 쇼핑·외식·여가 지출에 관대한 성향, 새로운 상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 등으로 소비재 진출 시장으로 적합
 - 베트남 시장의 테스트 베드로 주목을 받으며 상당수의 기업, 스타트업이 호치민 시에 전초기지를 구축
- (하노이) 하노이를 중심으로 대기업 및 1,2차 협력사 중심 투자
 - 소비시장 측면에서 하노이는 거주자들의 소비지출에 인색한 태도, 기존 브랜드에 대한 높은 충성도로 인해 신규 소비재 품목 진출지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 다만 과시적 소비성향이 강해 초고가 브랜드 입점이 활발한 편
 - 최근 인프라 개선과 행정개혁에 주력하고 있음
 - 삼성, LG등 국내 전기·전자 대기업의 북부지역 투자 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협력업체 상당수가 하이퐁시, 박닌성, 타이응우옌성 등에 진출
- (다낭) 베트남 대표 관광도시에서 동남권 하이테크 경제도시로 도약 추진

- 2013년 하이테크파크 조성 후 외국인직접투자(FDI) 9건을 포함 총 18개 프로젝트에서 미화 5억 6400만 달러 유치
- * 미국의 유니버설알로이(Universal Alloy,UAC)는 보잉, 에어버스 등의 부품 공급 업체로서 다낭 제조 공장에서 4천여 종의 항공부품을 생산하여 북미, 유럽, 아시아로 수출 중
- 외국인자본의 고급 리조트 건설과 국제 직항노선 신규 취항이 잇따르면서 베트남은 물론 동남아 지역의 대표적 휴양지로 꼽히고 있음

2. 베트남의 정책 동향

□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목표 설정

- 베트남은 2021년 1월 25일에서 2월 1일까지 개최된 제13차 전당대회에서 중장기 국가 발전 목표와 계획 발표
- (중장기 목표 및 전략 발표) ‘사회주의 지향 선진국 진입’*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 승인
- *베트남 건국 100주년인 2045년까지 1인당 GDP 1만 2천달러의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 목표
- **베 정부는 10년 단위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이행 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목표 제시



- 또한 이를 위해 주요 과제 및 ▲선별적 FDI유치 및 국영기업 민영화, ▲고급 인력 양성, ▲교통, 에너지, IT 인프라 우선 구축을 3대 전략적 동력으로 발표

<주요 과제 및 목표>

분 야	주요내용
거시경제	▶ 연평균 GDP 성장률 7% 제조업·디지털 경제 비중 30% 등
산 업	▶ 혁신·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인프라 개발
무 역	▶ FTA활용을 통한 수출 시장 확보, WTO 질서 준수
외 교	▶ 다자외교 증진 및 다자기구에 대한 적극적 기여

-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 주요 목표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2030 사회경제개발 목표 - (경제) 연평균 GDP 성장률 7% 시현, '30년 1인당 GDP 7.5천불 달성, 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6.5% 달성, 연평균 에너지 소비율 1~1.5% 감소 등 - (3대 전략적 동력) ⁱ⁾글로벌 경제 편입, ⁱⁱ⁾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체제, ⁱⁱⁱ⁾고급인재/인력 양성, ^{iv)}인프라 확충 - (과제 및 달성방안) 행정절차 개혁을 통한 영업활동 자유 보장, 디지털전환 촉진, 외투기업의 R&D, 혁신센터 설립 장려, 교육기관 품질개선 및 온라인 교육 강화, 국유기업 구조조정·매각 등 효율 개선, 인프라개발 및 해양경제 개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 이행 평가 - 전기 대비 소비자물가 안정화, 외환보유고 증대, 국가신용도 상승, 경상경비 감소,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감소 등 양호한 경제지표 시현 - 환경·자원관리 개선, 행정개혁에 따른 기업환경 개선, 국방·안보 강화 ▶ 2021~2025 사회경제개발 목표 - GDP 성장률 6.5~7% 유지, '25년 1인당 GDP 4.5~5천불 달성, 노동생산성 증가율 6.5% 달성 - 코로나19 효과적 통제, 시장경제 발전,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물가 관리 - 자원 개발, 인프라사업 시행 촉진, 인적자원의 질 향상, 과학기술 발전·혁신 촉진 - 국가민원 효율성 제고 및 부패 방지, 국방·안보 강화 등

□ 신규 투자법 및 투자법 시행령 공포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

- 베트남 투자법 개정안 '20년 6월 17일 제정, 시행령 (Decree 31.2021/ND-CP) 공포
 - 베트남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및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 투자기업 유치 강화 목적으로 '19년 8월 '2030년까지 해외투자 협력 증진 정책 및 체제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였으며, 투자법 및 시행령에 로드맵을 반영
 - 2014년 제정된 베트남 투자법 No.67/2014/QH13을 대체하여 2021년 1월 1일부로 효력 발생
 - 투자법 시행령은 2015년 제정된 舊투자법 2015의 세부조항 및 이행지침을 대체하며, 총 9장 132개의 조문으로 구성
 - 투자법 및 투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존 외국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조건부 투자분야 진출, 베트남 정부와의 분쟁,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 인센티브 획득 조건 명확화 등에 있어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임

□ 4차 산업혁명시대 동남아시아 IT강국 지향

- 베트남은 2019년부터 「Make in Vietnam」 4차 산업혁명 증진 캠페인을 시행, 2030년까지 첨단기술기업 10만 개사 육성, IT분야 세계 30위 진입, 디지털 경제의 GDP 점유율 30%로 확대 등을 목표로 수립
 -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개혁과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기업 중심의 발전을 지향할 계획

- 5G, 인공지능, 블록체인, 3D프린터,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보안 등 디지털 기술의 응용을 확대하고 청정에너지, 환경 기술 분야의 육성도 중점으로 삼을 전망
- 첨단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및 기초과학 연구 투자에 초점을 둘 계획

□ **폭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노력 가속화(FTA)**

- '86년 제6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대외개방을 표방한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라는 정책을 도입한 이후, 베트남은 서구 국가들과 통상 관계를 확대하고 실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 중
 - 자주적이고 실리적인 외교·통상정책을 펼치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FTA 및 경제공동체 조성에 적극 참여 중
 - 특히, 미국을 제외한 TPP 회원국들의 CPTPP 발효, '20년 8월 1일 발효된 EVFTA, RCEP 등의 영향으로 베트남은 유리한 통상환경 속에서 외국인 투자 및 교역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

<베트남의 FTA 추진 현황>

구분	발효 중	발효 예정 (타결·서명)	협상 중	검토 중
ASEAN 차원	AIFTA(인도, '10.1. 발효), AANZFTA(호주/뉴질랜드, '10.1. 발효) AKFTA(한국, '07.6. 발효) AJCEP(일본, '8.12. 발효), ACFTA(중국, '05.7. 발효) AHKFTA(홍콩, '19.6. 발효) RCEP('22.1. 발효)	-	-	-
베트남 단독	AEC(아세안경제공동체, '15.12. 출범), VJEPA(일본, '09.10. 발효), VCFTA(칠레, '14.1. 발효) VKFTA(한국, '15.12. 발효), VA-EAEU FTA(유라시아경제연합, '16.10. 발효) CPTPP('19.1. 발효), EVFTA('20.8. 발효)	-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VIFTA (이스라엘)	FTAAP

자료: VCCI(베트남 상공회의소) WTO센터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제조업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수출입세법상 면세제도 개선

- 2021년 3월 11일, 베트남 정부는 FDI기업과 베트남 내 대부분의 제조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입세법 시행령을 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정(Decree No.18/2021/NĐ-CP)
 - 수출입세법 개정시행령은 수출가공기업(EPE)에 관한 요건을 명확화하고, 수출 제조기업(SXXK)보다 임가공기업(GC)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는 등 중요한 변화를 포함
 - 내국수출입에 대한 신고절차 및 제재가 명확화되었고,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원재료소요량을 실제 생산소요량(định mức sử dụng)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과세하는 등 우리 제조기업 대부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정사항이 다수 반영
- 베트남 진출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수출용원재료 면세제도 요건 구체화
 - 수출가공기업(EPE)의 하드펜스 및 구역확보 요건, CCTV 설치 및 세관 연동 의무화 요건, 수책관리 소프트웨어 구비요건 등을 규정하였고, 개정시행령 발효 이후 1년 이내에 모든 기업이 관할 세관국에 요건 충족여부 확인 필요
 - 수출제조기업(SXXK)이 수출제조를 위하여 수입 및 국내 거래하는 원재료 중 정책상 관세징수권 확보 위험도가 높은 거래형태는 사전납부 후 환급 적용, 임가공계약을 통해 거래 관계를 명확하게 신고하는 임가공기업(GC)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파악

□ PPP법 발효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 기대

- 민관합작프로젝트(PPP)법(Law No. 64/2020/QH14)은 2020년 6월 18일 국회 통과, 2021년 1월 1일 발효
 - 기존 시행령(Law No. 63/2018/ND-CP)대비 기반시설 투자 가능 영역 추가, 최소 자기자본 상향조정, 투자 인센티브 및 리스크 분담, 외화 태환 허용 등의 법령 신설
 - 2021년 3월 PPP법 세부조항 및 안내 시행령(Decree No. 35/2021/ND-CP)과 PPP 프로젝트의 재무관리구조 규정 시행령(Decree No. 28/2021/ND-CP) 공표를 통해 세부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및 내용 구체화
 - 경제성장과 함께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인프라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베트남 정부의 재원 조달 부담에 따라 PPP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민간자금의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계획

- 2025년 1월 15일부로 기획, 투자, PPP 등 입찰법 개정에 관한 법률(Law No.57/2024/QH15)이 시행. PPP에 관한 법률은 1) 최소 투자자본 규모 한도 폐지, 2) BT사업 시행 허용 등을 포함해 공공투자(국가 독점 부문 제외) 활성화를 위해 개정됨

□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 강화, 개정 환경보호법 발표

- 베트남 내 ESG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보호법은 기업의 환경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
 - 프로젝트의 규모, 환경 자원(수자원, 광물자원, 토양자원)의 이용 정도, 환경 민감도와 같은 특정 요소를 기반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프로젝트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환경영향평가(EIA) 목록을 세분화
 - 생산 및 제조시설의 환경보호규정을 구체화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의무 확대
 - *경제구역·산업단지 내 생산기업의 폐수처리 및 폐기물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환경 보호 및 관리 인프라 정의, 기업의 산업 폐기물 및 위험물질(오·폐수, 배기가스, 먼지, 기타 위험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 관리 의무 부여 등의 내용도 포함

<분류 그룹별 적용 환경영향평가(EIA) 요약>

관리도구	그룹 I (환경 위험 높음)	그룹 II (환경 위험 중간)	그룹 III (환경 위험 경미)	그룹 IV (환경 위험 없음)
예비환경영향평가 (공적투자(ODA) 및 PPP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비 환경영향평가 실시)	모두 해당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수행	모두 해당	환경에 끼치는 민감 요인을 검토 후 판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환경허가	폐수, 분진, 배기가스를 발생시키고 환경에 영향을 끼쳐 그룹 I~III 으로 분류된 프로젝트. 배출전 전 처리가 필요한 유해폐기물이 발생하는 프로젝트(ODA 프로젝트 제외)			해당 없음
환경등록	폐기물을 생성하지만 환경 허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프로젝트. (a) 현장에서 처리 가능하거나 성·시 별 정책에 따라 관리되는 소량의 폐기물을 생산하는 경우 (b) 관련 프로젝트가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경우			

자료: Allen&Gledhill

□ 부품·소재산업 육성 정책

- 베 정부, 베트남 산업발전 및 부품소재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업 현지투자 강화 및 제조산업의 고도화 도모
- 글로벌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이 활성화되고, 제조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관련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발표

<베트남 정부의 부품소재 산업 주요 육성 정책>

정책명	내용
2035년 전망, 2025년까지의 국가산업 발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Decision No. 879/QĐ-TTg ('14년 6월) · (내용) 가공 및 제조 산업, 전자 및 통신 산업, 신재생에너지 부문등을 집중 육성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부품소재산업의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총력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Decree No. 111/2015/NĐ-CP ('16년 1월) · (내용) 자동차조립, 전기전자부품, 첨단산업 포함 우선 육성 7개 부품소재분야 선정 및 발전지원정책 발표 * ▲법인세, 수입세 등에 인센티브 제공, ▲부품소재산업 시험 생산 프로젝트 투자 보조금 지원, ▲R&D 시설 설립을 위한 토지임대료 인센티브 제공, ▲R&D 장비 구매비용 최대 50%까지 보조금 지원 등
지원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Resolution No. 115/NQ-CP ('20년 8월) · (목표) 2025년까지 자국기업이 국내 수요의 45% 충족 및 전체 산업 부문 생산가치의 약 11% 차지, 2030년까지 다국적기업이나 조립기업에 직접 납품이 가능한 기업 2,000개사 양산 · (내용) 기계공학산업, 섬유 및 의류산업, 가죽 및 신발 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의 지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매커니즘 동기화 노력, 지원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

IV. 베트남 경제 전망

□ 2024년 경제성장률 7.09%, 2025년 정부 목표는 6.0~6.5%

- 2024년 11월, 베트남 국회는 2025년 성장 목표를 6.5~7%, 최대 7.5% 달성토록 설정
 - 국회는 2025년 성장을 위해 각종 행정·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고 공공투자 집행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였음
 - 한편, 팜 민 쯐(Pham Minh Chinh) 총리는 국회 목표보다 훨씬 도전적인 8%대 성장 목표를 제시하며 두 자릿수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

<2025년 주요 사회경제적 발전 목표>

지표	'25년 목표	'24년 목표
경제성장률	6.5~7.0% (최대 7.5%)	6.0~6.5%
1인당 GDP	~4,900달러	4,700~4,730달러
GDP 대비 가공·제조업 비중	~24.1%	24.1~24.2%
소비자물가지수(CPI)	~4.5%	4.0~4.5%
노동생산성증가율	5.3~5.4%	4.8~5.3%

자료: 베트남 국회

□ 세계 주요 경제 기관, 경제성장률 6.5% 내외 전망

- 세계 주요 경제 기관은 베트남 정부 및 국회 대비 낮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전망
 - 2024년 베트남이 시장 기대치를 초과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2025년에는 미국 실행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요인 등 부정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

<기관별 2025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ADB	IMF	OECD	World Bank	Standard Chartered	평균
전망치	6.6	6.1	6.5	6.5	6.8	6.5

자료: ADB, IMF, OECD, World Bank, Standard Chartered

V. 체류시 참고사항

☐ 날씨

- 복장 : 여름용 정장 및 평상복
-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하여 얇은 긴소매와 겹옷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입국 시 유의사항

- '10년 9월부터 입국신고 간소화로 출입국신고서 및 세관신고서 작성 불요
- 여권 훼손, 분실 시 출입국이 불가하므로 보관에 유의
- 2023년 8월 15일부터 관광객 대상으로 기존 15일에서 45일까지 무비자 체류 기간을 확대
 - 외교관 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3개월 무비자로 베트남 입국 가능
- 2017년 2월부터 베트남은 온라인 비자(e-VISA) 시행. 온라인 비자는 관광·사업·투자·노동·유학 등 목적을 가진 방문객에 한해 신청 가능
 - 신 비자정책으로 온라인 비자 체류기간 기존 30일에서 최장 90일로 확대되었으며 단·복수 비자 형태로 발급 가능
 - 온라인 비자 신청: <https://dichvucong.bocongan.gov.vn/bocongan/bohutuc/tthc?mat=26277>
- '20년 7월 1일 출입국법 개정(Law No.51/2019/QH14)에 따른 변경사항
 - 과거 규정에 있던 출국 후 30일 이내 재입국 비자면제 불가 규정 삭제(30일 이내 무비자 재입국 가능)
 - 관광비자(DL) 기존 최대 3개월에서 개정 이후 최대 30일 발급만 가능
 - *관광비자를 90일마다 연장,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
 - 노동허가와 비자 혹은 거주증 없이 근로하는 경우 최대 미화 약 1천 달러의 벌금 및 강제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향후 베트남 입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 환율 및 통화

- 통화 : 베트남 동(VND)
- 환율
 - USD 1 = VND 25,894 ('25.5.20. KEB하나은행 환율 기준)
 - KRW 1 = VND 18.55 ('25.5.20. KEB하나은행 환율 기준)

□ 대중교통

- 대중교통 : 버스노선 및 배차시간 불명확하므로 택시 이용 편리
- 요금 : 기본요금 VND 5,000-12,000 / 킬로미터당 VND 13,000
- ※ 다낭 국제공항에서 중심지까지의 평균 택시비는 VND 78,000~100,000

□ Tip 제도

- 베트남에서는 정상 요금에 봉사료가 포함, 팁 지불 불요

□ 시차 및 근무시간

- 시차 : 한국보다 2시간 느림 (한국 9시는 베트남 7시)
- 근무시간 : 관공서와 은행은 주 5일 근무제(월~금)를 시행(07:30~16:30)

□ 전압

- 220V / 50Hz (3상 콘센트, 호텔은 한국 2상 콘센트 사용 가능)

□ 전화 거는 방법

- 베트남에서 외국 전화 시 00 먼저 누르고 국가번호 및 전화번호 누름

□ 유의사항

- 소매치기/강도 및 시클로(삼륜 자전거) 주의
 - 최근 외국인 대상 소매치기/강도 등 범죄 증가, 늦은 시간 혼자 배회 자제
 - 최근 시클로 및 세움(오토바이택시)의 경우, 바가지요금 및 범죄 행각 증가
- 보행 시 주의 요망
 - 도로에 신호등, 육교 등이 거의 없어 도로 횡단 시 매우 위험
 - 현지인과 사소한 문제로 언쟁할 경우, 집단구타, 흉기 위험
 - 지갑, 여권, 휴대폰, 태블릿 PC 등의 도난 주의
- 음료수 등 음식물 주의
 - 길거리 음식 및 해산물은 위험하므로 끓인 물, 익힌 음식을 드시는 것이 바람직
- 택시 이용 시 주의 요망
 - 가능한 호텔 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람이며 미터기에 나온 금액보다 더 나왔을 경우 적은 금액은 가급적 포기하는 것이 신변에 안전
 - 택시기사 중 일부는 분쟁 발생 시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음
 - 가급적 Vinasun, MaiLinh, Grab 등 유명 회사 택시 탑승 권장
- 베트남 유흥업소 출입은 매우 위험
 -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흥업소 호객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베트남 정부는 현지 유흥업소 및 마사지샵 등을 불시 집중단속하여 성매매 사범 등을 구금 및 강제추방하고 있음(베트남은 매춘 금지 국가)

VI. 주요 연락처

□ KOTRA 다낭무역관(KOTRA Danang)

- 주소 : 4th Floor Bach Dang Complex, 50 Bach Dang St, Hai Chau Dist
- 전화 : (+84)236-377-9700 / 팩스: (+84)236-377-9701

□ 한국 대사관(하노이)

- 주소 : SQ4 Diplomatic Complex, Do Nhuan St, Xuan Tao, Bac Tu Liem
- 전화 : (+84)24-3831-5111 / 영사부 (+84)24-3771-0404

□ 한국 총영사관 (다낭)

- 주소 : Lot A 1-2 Chuong Duong St., Ngu Hanh Son District, Danang
- 전화 : (84-236) 356-6103, 팩스 : (84-236) 356-6105

□ 한국 총영사관 (호치민)

- 주소 : 107 Nguyen Du St., Dist.1 HCMC, Vietnam
- 전화 : (+84)28-3822-5757 / 팩스 : (+84)28-3822-5750

□ 긴급의료시설

- 빈멕 병원 : Vinmec International Hospital, Danang
 - 주소 : No. 4-30/4 St, Hai Chau, Da Nang
 - 전화 : (+84)236-371 1111

<참고1> 한-베트남 고위급 외교 일지

- 한-베 수교 : 1992. 12. 22
- 정상급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 교류 활발
 - 1993.5월 Vo Van Kiet 총리 방한
 - 1996.11월 김영삼 대통령 방베
 - 1998.12월 김대중 대통령 방베
 - 2001.8월 Tran Duc Luong 국가주석 방한
 - 2002.4월 이한동 총리 방베
 - 2003.9월 Phan Van Khai 총리 방한
 - 2004.10월, 2006.11월 노무현 대통령 방베
 - 2007.11월 Nong Duc Manh 당서기장 방한
 - 2008.3월 Nguyen Phu Trong 국회의장 방한
 - 2008.4월 임채정 국회의장 방베
 - 2008.5월 Truong Tan Sang 당 상임서기 방한
 - 2009.10월 이명박 대통령 방베(Korea week)
 - 2009.12월 김형오 국회의장 방베
 - 2010.10월 이명박 대통령 방베(아세안 정상회담)
 - 2011.11월 Truong Tan Sang 국가주석 방한
 - 2013.9월 박근혜 대통령 방베
 - 2014.10월 Nguyen Phu Trong 당서기장 방한
 - 2014.12월 Nguyen Tan Dung 총리 방한, 한-베 FTA 체결 타결
 - 2015.5월 한-베 FTA 공식 서명
 - 2015.12월 한-베 FTA 공식 발효
 - 2017.4월 정세균 국회의장 방베
 - 2018.3월 문재인 대통령 방베
 - 2018.9월 이낙연 국무총리 방베
 - 2020.10월 박병석 국회의장 방베
 - 2023.3월 윤석열 대통령 방베
 - 2024.7월 한덕수 국무총리 방베(응우옌 푸 쯁 당서기장 조문)

<참고2> 다낭 인근 주요 관광지

<p>1] 바나힐스 (Ba Na Hill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낭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소재한 프랑스 식민지 시절 건설된 휴양지 (해발 1500m)로 Ba Na는 '신성한 여인'을 뜻함 ▶ 세계에서 2번째로 긴 총 길이 5801m의 케이블카 보유 (소요시간 약 20분) ▶ 정상에는 프랑스 마을, 판타지 파크(놀이시설), 밀랍 인형 박물관, 머큐어 호텔(4성급) 소재 ▶ 입장료 : VND 65만(약 33천원)-뷔페포함 시 VND 70만
<p>2] 린응사 (Linh Ung Temp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낭 해안가 북쪽, 선짜 반도 언덕에 위치한 사원으로 거대한 해수 관음상으로 유명 ▶ 관음상은 총길이 67m로 내부에는 서로 다른 형상을 한 21개의 불상이 소재 ▶ 영응사 안에는 사원들과 거대한 석상, 고목들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 ▶ 아름다운 해안선으로 인해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
<p>3] 미케 해변 (My Khe Beac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유명 경제 잡지 포브스 (Forbes)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해변 베스트 6에 포함 ▶ 페러세일링(보트가 낙하산 끌어주는것) 등 몇 가지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음 ▶ 시내에서 들어와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해변으로 접근성이 매우 좋아 현지인들의 만남의 장소 역할
<p>4] 오행산 (Marble Mounta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양 철학에 따른 하늘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Thuy Son(水山), Moc Son(木山), Hoa Son(火山), Tho Son(土山), Kim Son(金山)으로 구성 ▶ 14~15세기 중부 베트남을 지배했던 참파 왕국의 조각상 및 18세기 베트남의 떠이 선(西山) 왕조의 다양한 베트남 시대의 유적들을 관람 ▶ 입장료 : 계단 VND 15천(750원) / 엘리베이터 15,000동/회

<p>5 용다리 (Dragon Brid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낭 한강(Han River)에 위치한 다낭의 랜드마크 ▶ 2009년 7월에 건설을 시작, 2013년 3월 개통 ▶ 15,000개의 LED램프로 야간 조명 (7가지 색으로 변함) ▶ 매주 토, 일 21시에 용머리에서 불쇼를 진행(약 10분) ▶ 주변에 '사랑의 다리' 및 '용이된 인어'상이 소재, 포토존의 역할을 함
<p>6 다낭 대성당 (Da Nang Cathedr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중부 다낭 대교구 성당으로 프랑스 식민지 시대 다낭에 지어진 유일한 성당 ▶ 치솟는 선과 크라운 아치의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성당 안에는 성서의 사건을 그린 삽화가 있음 ▶ 지붕에는 합금으로 만든 회색 닭 조각상이 있어 치킨 교회로 부르기도 함 ▶ 국내 TV프로그램에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소개
<p>7 다낭 한시장 (Da Nang Han Mark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시장은 다낭 최대 규모의 종합 재래시장으로 다낭 대성당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할 정도로 가까이 위치 ▶ 고기, 생선, 과일 등의 식료품부터 꽃, 비단 등의 옷감, 티셔츠나 청바지 등의 옷, 신발, 기념품 등 판매 ▶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
<p>8 호이안 올드타운 (Hoi An Ancient Tow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낭시내에서 차량으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 ▶ 15~19세기 동남아 무역항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으로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 중국·일본의 건축양식과 베트남 전통방식이 결합한 당시 건물(일본교, 광동회관 등)을 관람할 수 있으며 호이안 야시장 역시 가까이에 위치 ▶ 입장료 : VND 120,000(6천원)
<p>9 미선유적지 (My S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낭에서 남서쪽으로 69km 지점에 위치한 고대 참파 왕국의 힌두교 사원 유적지로 4세기~14세기에 세워짐 ▶ 미선은 참파 왕국의 종교였던 힌두교 시바 파의 성역이며, 참파 왕국 전체의 수도였음 ▶ 사원군은 2개의 산맥에 의해 둘러싸인 2km 너비의 골짜기 안에 있음 ▶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참고3> 간단한 베트남어

안녕하세요. Xin chào. (썸 짜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Rất vui được gặp ((남) anh/((여) chị)
(젓 부이 드억 갑 (아인/찌))

상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Xin cảm ơn ngài đã cho gặp.
(썸 감 언 응아이 다아 쯤 갑)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Rất có ích đối với tôi.
(젓 꼬 익 도이 버이 또이)

또 뵈겠습니다. Chúng ta sẽ gặp lại nhau. (썸 따 썸에 갑 라이 냐우)

감사합니다. Xin cảm ơn. (썸 감 언)

얼마입니까? bao nhiêu tien?(바우니우 땡?)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 Anh/Chi Ten gi a ?(아잉(남)/찌이(여) 땡 지 아?)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Tên tôi là (Hongkildong). (땡 또이 라(홍길동))

잘 모르겠습니다. Tôi không biết. (또이 크움 비엣)

실례합니다. Xin lỗi. (썸 로이)

오늘 hom nay (흙 나이), 내일 ngay mai (응아이 마이), 어제 hom qua (흙 과)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